

■ 주요 뉴스: 미국, 정부 섰다운 종료 앞두고 연준 금리인하 기대 확산

- 연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내부 이견 여전
- 일본 재무상, 엔화 약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응
- 중국, 미-중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량 저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예산안 하원 표결 이후 섰다운 해제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섰다운 종료 기대와 AI버블 우려가 상충하며 소폭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금융관련주 매수증가 등으로 0.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정부 가능 재개 이후 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67.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9.4원, 0.25% 상승). 한국 CDS 약보합

		11/12일	11/11일	전일대비			11/12일	11/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50.9	6,846.6	+0.06%	국채 금리 10y	미국	4.07%	휴장	-5bp
	유럽	584.23	580.13	+0.71%		독일	2.64%	2.66%	-2bp
	중국	4,000.1	4,002.8	-0.07%		영국	4.40%	4.39%	+1bp
	일본	51,063	50,843	+0.43%		CDS 5y	한국	22bp	22bp
	한국	4,150.4	4,106.4	+1.07%		중국	42bp	41bp	+1bp
	달러지수	99.49	99.44	+0.05%	위험 지표	EMBI+	-	280	-
환율	유로화	1.1593	1.1582	+0.09%		VIX	17.51	17.28	+1.33%
	엔화	154.79	154.16	-0.41%		WTI유	58.49	61.04	-4.18%
	위안화	7.1110	7.1173	+0.09%		원자재	구리	508.6	506.6
	원화	1,465.7	1,463.3	-0.16%		금	4,195.4	4,126.9	+1.6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정부 섯다운 종료 앞두고 연준 금리인하 기대 확산

- 미국 하원은 11.12일 오후 7시경(한국시각 13일 오전 9시경) 정부 예산안 표결. 상원 가결에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부 섯다운이 공식 종료될 예정. 정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 예상
- 정부 기능 재개 이후 그간 지연된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9월, 10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최대 관심사. 시장 참가자들은 공식 통계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를 기대
- 다만,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CPI와 실업률 등 일부 경제지표들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조사 자료 미비로 통계 발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소급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Bloomberg)
- 한편, 섯다운 종료 이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 시각이 우세. 4분기 GDP는 섯다운 여파로 다소 부진하겠지만 내년 1분기 회복이 예상되며, AI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내부 이견 여전

-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향후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근거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 행동이라고 주장
- 또한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통화정책 결정이 경제의 실제 수요-공급 불균형이 아닌 과거의 통계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앞으로 노동시장의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 한편,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는 노동시장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안정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보스틱 총재는 내년 2월말 임기 종료와 함께 재임 시도를 포기하고 연준을 떠날 예정

■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шит, 연준 의장 제의 오면 수락 의향

- 해шит 위원장은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개인적 견해로는 50bp 인하가 타당하다고 발언
-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는 최근 연준의 정책결정에 있어 당파적 고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연준에서의 5년간 업무 경험 및 연준 이코노미스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

■ 일본 재무상, 엔화 약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응

- 카타야마 재무상은 달러/엔 환율이 일방적인 약세 방향으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환율의 과도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
- 특히 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정책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 시장에서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으며, 직전 개입은 7월에 시행

■ 중국, 마-중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량 저조

- 10월말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연말까지 1.2천만톤, 향후 3년간 연간 2.5천만톤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주문량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
- 중국은 이미 남미에서 상당한 물량의 대두를 수입하여 비축량에 여유가 있으며, 미국산 대두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앞으로도 구매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

■ 대만, 국익 저해 등 유사시 반도체 수출 통제 가능성 시사

- 대만 외무부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타국이 대만의 국익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해당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 과거 대만은 남아공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음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1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카시카리 및 샌프란시스코 연은 달리 총재 발언
- 유로존 9월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물가와 고용에 대한 의견 대립 심화로 12월 금리인하 불투명 - WSJ

(The Fed Is Increasingly Torn Over a December Rate Cut)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노동시장 해석에 있어 연준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증폭. 다음 3가지 질문이 쟁점. 첫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회성인지? 이는 기업들의 비용 전가 여부가 관건
- 둘째, 일자리 감소가 기업의 노동 수요측 요인인지 아니면 이민 제한으로 인한 공급측 요인인지? 전자의 경우 높은 금리는 경기침체를 유발. 셋째, 금리 수준이 여전히 긴축적인지? 정부 섀다운으로 인한 데이터 공백은 양측 대립을 심화시키며 12월 금리결정에 어려움을 가중

■ 미국의 K자형 경제, 소득양극화보다 미래 전망의 차이에서 비롯 - Financial Times

(How K-shaped is the economy, really?)

- 최근 미국에서는 부유층이 소비 성장을 주도하고 저소득층은 뒤처진다는 'K자형 경제'가 주요 화두. 기업 CEO들도 실적 부진의 이유로 저소득층 소비 위축을 지목. 그러나 '탈달러화' 내러티브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
- 미국은 오래전부터 불평등 사회였지만, 통계상 최근 몇 년간 부와 소득 격차가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하위 50%의 부는 꾸준히 증가. 최근 양극화의 핵심은 소득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의 차이에 기인
-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 둔화와 고용 감소로 협상력 악화를 체감하며 소비 심리가 악화. 전반적 경기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소비 위축은 이를 반영

■ 미국인들, 트럼프 정책 방향과 달리 물가뿐 아니라 일자리 불안도 증대 - 블룸버그

(It's Not Just Affordability, Americans Anxious Over Jobs Too)

- 트럼프는 바이든 경제의 고물가를 비판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과감한 경제 정책 시행과 실질임금 인상을 강구했다고 주장. 아울러, AI 투자로 인한 일자리 증가와 감세와 관세의 긍정적 경제 효과를 언급. 하지만 미국 취업자의 55%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가계의 62%가 물가 상승에 불만(Harris Poll)
- 물가상승률은 연준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 급감 및 소비자 심리 하락이 관측. 트럼프 관세정책은 물가 압박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동시에 심화시키며 고용 유인을 악화. 우려스럽게도 정부 정책과 미국인들 체감은 역방향

- **미국 은퇴자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경기침체 시 상황 악화 우려 - The Economist**
(Old folk are seized by stock market mania)
 - 최근 미국 은퇴자가 증시 상승의 전반을 주도. 전체 주식과 뮤추얼 펀드의 39%를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89년~'09년의 평균 대비 두 배 수준. 이는 위험자산 선호 성향이 더욱 고조되면서 주식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 일각에서는 은퇴자의 주식투자 확대가 채권투자보다 낫다고 주장
 - 하지만, 은퇴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특히, 경기침체 시 은퇴자의 주식 매도세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침체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고령층의 경우 젊은 투자자에 비해 손실발생 시 만회할 시간이 짧다고 느끼기 때문
- **미국 국채 투자자,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10년물 금리 4% 하회 예상 - 블룸버그**
(Traders Ramp Up Bets on US Data Dump Sparking Treasuries Rally)
- **AI 전력수요 폭증, 전기요금 상승으로 정치적 반발에 직면 - 블룸버그**
(AI's power grab has to face affordability politics)
- **미국 대형은행, 채산성 우려 등으로 AI 도입 경쟁에 부담 - 블룸버그**
(AI Gains for Big Banks Pose a Competition Headache)
- **중국 광군제, 역대 최장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관심 저조 - Reuters**
(China's Singles' Day shopping festival winds down with 'muted' sentiment)
- **중국, 미국의 칩 규제에 의한 반도체 물량 부족 등으로 AI 진전 계획에 차질 - WSJ**
(America's Chip Restrictions Are Biting in China)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